

'7대 문화권 구축사업' 등 예산 확보 정치권 공조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부와 광주시, 시민간 소통행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문화전당 건립현장.

민선 6기 광주시 문화행정 새 판을 짜라

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0월 완공 앞두고도 운영 인력 등 공백 상태 특별법 조속 처리로 내년 개관 차질 없어야 자생적 문화 생태계 위해 시 '불간섭' 필요

지난 2월 광주시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크게 반겼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그늘을 드리우는 결과를 낳았다. 시가 당시 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특별법 개정안) 보다 '국제대회 지원법 개정안' 처리에 방점을 찍는 바람에 특별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하게 된 것이다.

두 법안이 동일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했으나, 결국에는 일회성 국제행사에 광주의 최대 현안이 밀려난 모양새가 됐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제대회 지원법 개정안 처리에 매달리는 동안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에 밀려 법안 처리시 기조차 점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문화전당 운영인력 구성의 토대가 되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지연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는 10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을 앞두고 있음에도 운영 인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이다. 선박이 건조돼 진수식을 앞두고도 운영할 선장은 물론 선원들도 없는 것과 다를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특별법안 발의로 문화전당 운영주체 논란에 불을 지피 사업자질을 자초한 책임은 문화부에 있다. 대표적인 불통행정이었다. 문화부는 지난해 지역에서 단 한차례 공청회도 열지 않고 '아시아 문화개발원'의 명칭을 '(재)아시아 문화원'으로 변경해 문화전당 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민선 6기를 시작하는 광주시가 왜도난마 행정을 보여주고 고대하고 있다. 우선 문화수도 위상에 걸맞게 정책 최우선 순위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두고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전념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별법안 국회통과는 2015년 문화전당의 차질없는 개관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시 문화행정의 타깃과 초점점도 새롭게 조정돼야 한다. 문화전당이 내년 9월 개관하는 만큼 시야를 넓혀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의 또 하나의 축인 7대 문화권 구축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 전역을 7

개 문화권으로 나눠 도심 곳곳에 문화적 생태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문화 수도조성사업의 완결과 직결돼 있다.

광주시의 선결과제는 명확하다. 장기적으로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완결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그 핵심이다. 문화부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 수정계획에 따르면 2013~2023년까지 투입돼야 할 총 예산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간 분담조건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광주시의 열악한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가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7대 문화권 구축' 등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관(官) 주도의 문화행정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지역 예술인들은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 지자체의 간섭과 통제로는 결코 창의적이고 자생적인 문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시장직 업무 인수위 격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하림 교수는 "민선 6기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며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행정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art:gwangju:14

8월30일~9월2일 광주 DJ센터

역사적 사건과 미래적 기억

화랑 50여곳 참여... 지난해 절반

예산 미확보 '반쪽 행사' 그칠 듯

올해 5회째를 맞는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 2014'(art : gwangju : 14)가 오는 8월30일부터 9월2일 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하지만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게 됐다. 그동안 아트광주가 초라한 성적표를 존폐위기를 겪기도 했던 만큼 국제적인 미술잔치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사)한국미협과 아트광주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아트광주는 '역사적 사건과 미래적 기억'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광주·전남의 현대사와 문화의 흐름을 현대 미술 속에서 재연하는 아트쇼로 꾸며진다.

예술감독에는 중앙대 사진학과 출신으로 뉴욕 갤러리 사토리 디렉터와 2013 전주포토펠스티벌 전시감독을 지낸 정호씨가, 운영감독에는 퍼블릭아트 발행인인 백동민씨가 선임됐다.

올해 행사에는 미국 씨메이 갤러리, 중국 아시아 아트웍스, 박영덕화랑, 이화익갤러리, 선컨템포러리 등 지난해(102곳) 절반 수준인 국내·외 화랑 5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호 감독은 "본 전시규모는 축소했지만 좋은 작품을 통해 행사의 질을 높이겠다"며 "올해 행사에서는 앤디 워홀, 크리스토폴, 백남준, 이우환, 김창열, 왕지지에 등 동·서양 현대미술의 주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트광주2014는 본 전시와 함께 3개의 특별전, 1개의 강연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세계미술사 흐름에서 주요하게 거론되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현대사진특별전에서는 빌 브란트, 호소에 에이코, 만 레

이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파울 클레 아프리카 여행과 색으로의 전환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하고 있는 '오마주 파울 클레'와 미디어설치 특별전 '격동의 빛과 울음'은 예산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8월30일 '현대미술에 있어서 전시의 쟁점'을 주제로 열리는 강연 프로그램에는 필립 티나리 올렌스 현대 미술센터 관장과 이경철 중앙대 교수가 참여한다.

그동안 아트광주는 관람객과 컬렉터, 작가 등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구나 올해는 규모마저 대폭 축소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는 전체 예산 3억원 가운데 국비 9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해 예산이 광주문화재단에서 남겨받은 이월금을 포함해 3억5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올해 초부터 아트광주 주관기관을 놓고 한국미협과 광주미협 사이에 불협화음을 내면서 행사 준비에도 난항을 겪어왔다. 주최 기관인 광주시마저 조율과정에서 '오라가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문공부에서 1억5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백남준 작 '테크노 보이2'

드뷔시의 '바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내일 정기연주회

'여름, 그리고 바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현세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드뷔시의 대표작 '바다'를 선사한다. '세 개의 교향적 스케치'라는 부제가 붙은 '바다'는 드뷔시가 상상한 바다를 감각적이고 환상적인 색채감으로 풀어낸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작이다.

또 낭만적 감성과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리스트의 '피아노협주곡 1번 작품 124'도 연주한다. 협연자는 연세대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피터 오프차로프다. 15세 때 영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모스코바, 비엔나, 도쿄 등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중이다.



이현세 상임지휘자 피터 오프차로프

그는 "리스트 없이는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피아노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학생 시절에 리스트 음악을 즐겨 연주하는 다른 이들과 달리 30대를 지나서 빠져든 리스트 음악을 기교와 표현력을 좀 더 깊게 성숙한 방법으로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밖에 스웨덴 작곡가 휴고 알프벤의 '스웨덴 광시곡 1번 한여름의 백야제', 샤브리예의 가곡 '맘에도 없는 임금' 중 '슬라브 무곡' 등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